교부세 목맨 지자체 위장전입 는다

인구늘리기 성과 없고 불법 부추겨

교육여건 개선·기업유치 대책 절실

교부세 부과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남 도내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위장 전입 등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A군(郡)은 이달 말까지 공무원 1명당 1명씩 지역내로 유치하는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지역으로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늘고 있다.

B군은 광주에 거주하는 공무원 가족들의 이전을 위해 전입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C군도 공무원은 물론 지역내 유관 기관 임직원들의 주소까지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최근 5만명이 붕괴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일부 시·군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면 교부세도 줄어들고 공무원 조직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구 1명이 늘어나면 교부세가 최대 120만원 증가하고 인구 5만명이 무너지면 행정부서 2곳이 축소된다.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동원한 임시 방편식 인구 늘리기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든 만큼 교육여건 개선이나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종합

지난달 14일 밤 완도군 신지면 상산과 다도해를 스크린 삼아 환상적이고 다이내믹한 레이저 시연회가 펼쳐졌다.

완도 앞바다 '레이저 쇼' 펼쳐진다

동망산 전망탑 시스템 설치 … 내년부터 볼거리 연출

완도서 내년부터 환상적인 레이저 쇼를 볼 수 있게 됐다.

완도군은 일출·일몰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완도읍 동망산(해발 380m) 전망탑에 레이저쇼 시스템을 설치, 내년 5월부터 환상적인 볼거리를 연출한다.

완도군은 그동안 세계적인 관광지를 대상으로 정밀 타당성 조사에 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쇼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게 됐다.

레이저 쇼는 야경으로 유명한 홍콩에서 매일 저녁 30분간 실시되는 인기 관광상품이다.

레이저 쇼가 연출될 동망산에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152억 원이 투입돼 일출 전망탑(높이 51m)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달 14일 신지면 상산 일대에서 레이저 쇼 시연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시연 결과, 수려한 해양 경관과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완도 다도해에 환상적인 레이저 쇼가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명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장흥 웰빙 해산물 인기몰이

매생이·굴·키조개 등 겨울철 소비 급증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매생이·굴·키조개 등 웰빙 해산물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해돋이로 유명한 용산면 남포를 비롯해 율산·죽청·옹암 등지의 30여 곳에 달하는 석화(굴) 구이집에는 가족 단위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생산되는 매생이는 대덕읍 옹암 등지에서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생이는 무기염류와 비타민 A·C 등이 풍부하고, 어린이 성장 발육과 골다골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웰빙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키조개와 김, 쇠미역, 바지락 등도 도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인터넷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177개 품목의 무공해 농·수·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남진 장흥몰'(www.okjhmall.com)도 운영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저소득층 농산물 기탁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지부장 김희태)는 3일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례군에 기탁했다.

구례군은 기탁받은 농산물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계층 5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기동 군수는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I LOVE 화순 운동'

郡 산하 공직자 '내고장 바로알기' 등 다짐

화순군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 LOVE 화순 운동' 추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참석자들은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 실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내 고장 바로알기 ▲내 고장 마케터(marketer) 역할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는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남을 우선 배려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완준 군수는 "획기적 발상으로 지역의 잠재적 개발 요소를 발굴해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 적벽청류 옛 모습 복원

조선시대 관리 풍류 즐긴 곳

강진 병영천 상류인 적벽청류(赤壁淸流)가 옛 모습으로 복원됐다.

강진군은 군비 3천만원을 들여 지난 9월부터 병영면 적벽청류 복원공사를 실시해 최근 공사를 완료했다.

병영천 적벽청류는 맑은 물이 흐르고 커다란 바윗 돌들이 위치해 있어 풍광이 아름답다.

또 '일망대(日望臺)'로 불리는 높이 200m의 작은 산과 그 밑에 있는 '적벽(赤壁)'이라는 암벽은 병영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시대 수군병사와 관리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적벽청류가 복원됨에 따라 인근의 전라병영 성지(사적 제 397호)와 병영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 385호), 하멜 기념관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국내산 골드키위 '해금'

전남 농기원 보급 확대

외국산 골드키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참다래 신품종 '해금'이 확대 보급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과육이 노란 골드키위인 '해금' 육종에 성공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 국립 종자관리소에 신품종 보호출원을 마쳤으며 내년부터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다. 해금은 당도가 13.5~15도로 단맛이 강하고 1㏊당 30~50t의 수확이 가능하다. /송기동기자 song@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차량 지원

보성 웅치면 '효 드림' 앞장

보성군 웅치면(면장 강원석)이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효 드림(孝-Dream)'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웅치면 직원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12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1회 이상 가정 방문과 야외나들이 차량 지원 등 '효 드림(孝-Dream)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여성자원봉사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등 50여명이 담근 500포기의 김장 김치와 유관 기관 및 주민들이 기증한 사랑의 쌀 240kg를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35세대에 전달했다.〈사진〉

웅치면은 평소에도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사랑의 뒤주쌀 모금 운동을 벌여왔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완도군 '부적합 공무원' 퇴출 나선다

완도군이 공직에 부적합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강도높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완도군은 부적격, 무능 공무원을 ▲민원 불친절, 처리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주민과 물의를 야기하거나 ▲음주 등의 사유로 무단 결근을 자주하는 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자 ▲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으로 공직품위를 현격히 손상한 자로 규정했다.

또 ▲공직감찰 및 복무점검 위반으로 3회 이상 주의, 경고를 받은 자 ▲비위와 사생활 문란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직 전념이 곤란한 자도 퇴출된다.

완도군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일단 현직에서 분리해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반에 배치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위해제와 면직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